

Factors Influencing the Recovery of Alcoholics in A.A.

Sun Hee Kim[#], Hyung Ui Baik[†], Young Ho Kim[†]

Department of Addiction Rehabilitation and Social Welfare, Eulji University, 553 Sanseong-Daero, Sujeong-gu, Seongnam, Gyeonggi,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various variables that affect the recovery of alcoholic addicts participating in A.A. meetings and compare the effects of these variables. In this study, a purposive sampling method was applied to recruit the sample A.A. participants in South Korea and the data for 554 participant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including family support, occupation, and educational background had positive effects on the recovery as a holistic change in the alcoholics' life and its sub-factors such as physical, social and mental recovery. In addition, A.A. commitment had a great influence on recovery, along with the sense of self-efficacy and self-estee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for improving the recovery of alcoholics, as well as specific practical measures such as recurrence prevention programs, stress management and psychological support, family support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Key words: A.A. commitment, recovery, self-efficacy, self-esteem, family support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알코올중독자의 재발을 막고 회복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유기적인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알코올중독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질병으로도 받아들이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알코올중독은 병원 퇴원 후 1년 이내 재발율이 90%정도로 다른 정신 질환에 비해 재발율이 높은 질환이다(Won & Kim,

2017: 291-300). 임상현장에서 실천가들은 전문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A.A.(Alcohol Anonymus)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알코올중독으로부터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해왔다(Humphreys & Moos, 2007; Blonigen, et al., 2013; Kim, 2016). 알코올중독자들이 재발없이 단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A.A.에 성실히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A.A.참여자들은 사회적 지지도가 높고 회복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Lee, 1999). A.A.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고위험 상황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재발방지의 긍정적 효과

[#] The 1st author: Sun Hee Kim, Tel. +82-31-740-7387, Fax. +82-31-740-7389, e-mail. boramaekim@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s: Hyung Ui Baik, Tel. +82-31-740-7440, e-mail. smart2ky@eulji.ac.kr
Young Ho Kim, Tel. +82-31-740-7475, e-mail. kyh1212@eulji.ac.kr

를 가진다(Lee, 2002; Yang & Chung, 2010). 알코올중독자들에게 A.A.모임은 단주에 효과적이며, 단순히 술을 끊는 것을 넘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회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A.A. 모임의 적극적인 참여 즉, 12단계를 실천하는 A.A.몰입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ng, *et. al.*, 2003; Allen, 2000; Moos & Moos, 2004; Arthur, 2005; Felicia, *et. al.*, 2008; Strobbe, 2009; Hailemariam, *et. al.*, 2018).

그러나 A.A.모임 참여가 반드시 단주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중독에서의 회복에 충동성, 부정적 정서, 낮은 자존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수의 알코올중독자들은 음주 문제와 함께 잦은 재발로 인해 가족, 지인 그리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면서 자존감이 더 낮아지고, 소외감이나 무기력함 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자존감이 낮을수록 음주의 심각도가 높기 때문에, 쉽게 재발에 이르게 되고 재음주로 인해 자아존중감은 더 낮아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Jang, 2011; Kim, 2012). 알코올중독으로부터의 올바른 회복의 시작은 술을 마시지 않고 지내는 것과 술 없이도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음주와 관련된 고위험 상황에서 알코올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며, 지속적인 단주를 위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된다(Annis & Davis, 1991). 그러므로 단주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의 증진은 진정한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업일 수 있다.

알코올중독으로부터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 알코올중독자가 인지하는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재발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umphrey, *et. al.*, 1998; Kaskutas, *et. al.*, 2001; Walton, *et. al.*, 2003). 우리나라의 경우 비공식적 자원체계인 가족들이 알코올중독자들의 유일한 사회적 지지체계인 경우가 많다(Yoon, *et. al.*, 2012). 한국사회는 아직도 혈연 중심인 삶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가장 친밀한 인간 관계망이며 매우 중요한 사회적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코올중독의 재발에 완충효과가 있는 사회적지지 중

에서 특히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회복 효과가 높고(Kaskutas, *et. al.*, 2001; Lee, 2016), 가족으로부터의 강한 지지는 치료결과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Broome, *et. al.*, 2002). 이외에도 알코올중독자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변수에는 직업, 학력 등이 있다. 알코올중독자의 회복에 있어서 사회 경제적 안정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Peter, *et. al.*, 2013) 이는 알코올중독자가 직업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은 알코올중독자 자신 내면의 취약성을 치유하고 삶의 여러 기능을 강화시켜 만족스러운 단주생활과 사회진입이 가능토록하기 때문이다(Platt, 1995; Robert, *et. al.*, 2008). 또한 직업을 유지하면서 자기효능감이 증가하고 직업 내 인간관계를 재형성하게 되며, 일에 대한 가치와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기에 단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Cho, 2013). Sung(1995)은 단주군이 음주군에 비해 안정된 직업상태를 유지하고 높은 학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학력 또한 알코올중독의 회복에 있어서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나타내는데(Lee, 2016) 학력이 높을수록 알코올중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스스로 자신의 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그동안 알코올중독자들의 재발 또는 회복에 관련된 연구들이 일부 이루어져왔으나 A.A.에 참여하는 멤버들의 A.A.몰입과 자아존중감과 단주 자기효능감의 심리적 요인 변수 기타 다양한 변수가 회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A.에 참여하고 있는 알코올중독자들에 있어서 A.A. 몰입과 자아존중감, 단주자기효능감이 회복에 미치는 영향과 그와 관련된 통제변수로서 가족지지, 직업, 학력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기여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알코올중독자의 효과적인 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한 실천적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선행연구 검토

1. 단주 vs. 회복

알코올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이란 술 없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Jacobson, *et. al.*, 2000). 최근에는 알코올중독치료에 대한 패러다임이 단주에서 회복으로 옮겨지고 있는데(Rhee & Kim, 2015), 회복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평생에 걸친 과정이라 할 수 있다(Lee, 2016). Hill(2005)은 아프리카 계 미국인 여성연구에서 회복은 개인이나 가족 뿐 아니라 보다 넓은 영역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회복이란 개인마다 독특하고 차별적인 경로를 가지며(Yoon & Kim, 2015), 회복 자체가 지속적이고 진행적인 개인의 질병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Lee, 2013: 485-5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알코올중독자의 단주기간을 회복의 지표로 삼았던 많은 연구들과는 달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에 회복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신체적 회복은 수면, 식욕 등 신체적, 기능적으로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적 회복은 자신이 소속되어 생활하고 있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그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가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회복은 이성적인 판단하에서 자기 행위를 통제하고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며 여기에서는 외로움, 부정적, 가치 등 영적인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결국 회복이란 단주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는 삶의 온전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2. A.A.와 A.A.몰입

1990년대 이후로 A.A.에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알코올의 문제를 감소시키고 단주기간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Allen, 2000; Strobbe, 2009). 이것을 A.A.몰입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A.A.몰입이란 12단계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며 A.A.모임에서 후원자를 두거나 누군가의 후원자가 되어주는 것을 의미한다(Yoon, 2005). Hailemariam(2018)은 지역사회와 시설에 거주하는 알코올중독자 모두에게 A.A.몰입이 단주율을 높인다고 하였다. DSM-5에 의해 알코올사용장애로 진단받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A.A.몰입을 평가한 결과 A.A.몰입도가 단주의 보호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rthur(2005)는 African-American 알코올중독자 27명의 남성과 2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A.A.몰입에 관한 질적연구를 시행한 결과 A.A.모임이 그들만의 문화적 공유 장소가 되고 회복프로그램을 지속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Felicia, *et. al.*(2008)도 알코올과 약물중독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3년간 A.A.에 몰입한 청소년의 경우 재발을 막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A.A.몰입과 알코올 문제의 감소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며(Tonigan, *et. al.*, 1996), A.A.몰입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12단계실천은 중독으로부터 회복으로 전환되는 A.A.의 핵심요소가 된다고 하겠다. 12단계 프로그램은 단주유지와 재발방지에 효과적이며, 알코올중독 프로그램 중에서 인지행동치료나 동기강화상담과도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Ouimette, *et. al.*, 1997; Donovan, *et. al.*, 2008). 그러므로 A.A.몰입은 알코올중독자들이 A.A.에 참여하고 12단계를 실천하는 삶을 의미하며 이것은 실제적인 음주문제를 감소시키고 회복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Montgomery, *et. al.*, 1995; Cloud, *et. al.*, 2004; Dawson, *et. al.*, 2006).

3.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회복

알코올중독자는 술을 많이 마실수록 특정 상황에서 건강한 대처 기제를 덜 사용하게 되므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 즉, 자기효능감이 떨어지게 된다. 여기서 자기효능감이란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이 낮아지

면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삶에 강하게 대처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알코올 사용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에는 알코올중독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Kodcar, 2002: 279). 단주유지에 있어 자기효능감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단주 자기효능감은 A.A. 멤버들이 단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며, A.A. 모임이 알코올 중독자의 단주의지를 높여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Jang, 2018; Yang & Jung, 2010).

알코올중독자의 단주기간이 길수록 단주자기효능감이 향상된다(Shin, 2009). 또한 단주를 결심한 사람이 높은 단주 자기효능감을 가지게 되면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고(Yoo, 2002), 향상된 단주 자기효능감은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Lee, 2016).

A.A.모임의 치료 요인인 영성, 사회적지지, 삶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확신이 높을수록 단주자기효능감도 높아지는데, 이는 A.A.가 재발방지의 치료적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Shin, 2009). 또한 A.A. 멤버들이 다른 회복 프로그램집단 참여자들보다 현저히 높은 단주자기효능감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Yang, 2007). A.A.모임에 많이 참여할수록(Park, 2008) 단주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고, A.A. 멤버들의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단주자기효능감 또한 증진되었다(Park, 2015). 그리고 A.A.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A.A.에 참여한 기간이 길수록 단주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다(Son, 2015).

한편, 알코올중독자들은 대부분 타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쓸모없다는 열등감으로 대체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다. 알코올중독자는 전반적인 삶이 음주행동과 연관되어 있어 자신이나 타인에게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신념과 사고로 자아존중감을 낮게 만들어 스스로를 학대하고 파괴하여 술을 마시게 하는 경향이 있다(Kodcar, 2002: 279).

자아존중감과 A.A. 참여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에서 지역사회 A.A.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알코올중독자들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Lee, 2002). A.A. 멤버들의 단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아존중감은 향상되고, 높아진 자존감이 다시 단주기간을 더 길게 하여 긍정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Shin, 2009). A.A. 멤버들의 자아존중감과 회복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도 증진되었다(Lee, 2002). A.A. 12단계 촉진치료를 따르는 참여자들은 단주기간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고 인격성숙도 또한 강화되었다(Shin, 2009).

4. 가족지지, 직업, 학력이 회복에 미치는 영향

알코올중독은 유병률과 재발률이 높은 만성적, 진행성 질병으로 알코올중독자 본인과 가족 구성원 전체에 역기능을 초래하고 가족 모두 위기상황에 처하게 만든다. 가족원의 알코올 문제는 전체 가족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회복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에 알코올중독자의 가족은 중요한 치료매개체로 활용되어야 한다. 가족의 지지는 알코올중독으로부터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Billings, 1979). 개인이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에 있어 사회적 지지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 중 가족지지 같은 따뜻한 정서적 지지가 단주 자기효능감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6: 33-57). 알코올중독자들에게 가족의 영향력은 매우 커서 가족지지의 정도가 변화동기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Yoo, 2002; Woo, 2012),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Yoon, et al., 2012; Yoo, et al., 2016). 반면 가족지지가 낮을수록 알코올중독의 심각도가 높았고(Kim, 2002), 가족의 이해 부족, 무관심 및 가족지지의 부족은 단주에 방해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Yoon, 2001: 13-25). 즉,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알코올중독자들의 회복 효과도 높기 때문에 환자 중심의 치료에서 나아가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치료과정에 참여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상담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Lee, 2016)과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A.A.와 가족지지의 관계를 연구한 Han(2003)은 가족지지가 있는 A.A. 멤버에

게 높은 희망이 있다고 하였으며, A.A. 멤버들에게 가족의 지지는 버팀목이 되어 회복을 연장해가는 힘이 되어 주기도 한다(Subbaraman, *et. al.*, 2001; Chun, 2011).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알코올중독자의 A.A.몰입과 가족지지가 함께 이루어지면 알코올중독자의 회복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알코올중독의 회복 관련 요인 중 직업과 학력에 관한 연구들도 있다. Peter, *et. al.*(2013)은 직업이 사회경제적 안정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알코올중독으로부터의 중요한 회복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이는 직업이 알코올중독자에게 있어서 내면의 취약성을 치유하고 삶의 여러 기능을 강화시켜 만족스러운 단주생활과 사회진입이 가능토록 하기 때문이다(Platt, 1995; Robert, *et. al.*, 2008). 하지만 직업 내의 음주압력으로 인하여 단주의 어려움이 높고 스트레스 대처의 문제가 있을 때 직업관련 문제가 심각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소득이 낮으면 재발위험이 높다는(Yoon, 2001: 13-25) 연구결과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직업이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기 보다는 직업과 관련된 환경, 스트레스 관리가 회복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Robert(2008)은 알코올중독자들의 학력이 회복에 유의미한 정적관계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Lee(2016)의 연구에서도 인구통계학적인 요인 중 학력만이 유일하게 A.A. 멤버들의 회복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학력일수록 알코올중독을 병으로 받아들이고 병식이 높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찾기 때문을 해석된다(Kim, *et. al.*, 1999). 즉, 학력이 낮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클수록 환경적인 스트레스 강도가 높으며 이것은 음주문제로 이어져 알코올중독과 재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알코올중독자의 단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또는 재발요인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알코올중독자의 A.A.몰입과 단주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그리고 가족지지, 직업, 학력 등의 특성과 회복의 관계에서 영향력의 크기와 개입의 우선순위를 예측하는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AA에 참여하는 알코올중독자의 회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예측적 상관관계 분석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제시하는 본 연구의 연구 문제와 가설을 포함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A.A. 참여 알코올중독자의 신체적 회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A.A. 참여 알코올중독자의 정신적 회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 A.A. 참여 알코올중독자의 사회적 회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4. A.A. 참여 알코올중독자의 전체적인 회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인가?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A.A.에 참여하고 있는 알코올중독자들에게 있어서 A.A. 몰입과 자아존중감, 단주자기효능감, 그리고 가족지지, 직업, 학력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회복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진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3. 연구대상

본 연구의 IRB는 E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EUIRB2019-02)을 받아 진행하였고, 국내 A.A.모임 참가자를 대상으로 목적적 표집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지 수집은 2019년 2월 1일부터 한 달간 시행되었고, 총 590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554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4. 변수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요인 6문항, 음주 및 단주관련 요인 9문항, 가족 지지에 대한 단일 문항, 그리고 주요변수로 회복 효과, A.A.몰입, 단주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1) 회복 효과

A.A.의 회복 효과는 Jung(1999)이 Miller & Kurtz(1994)의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평가한 것을 사용하였다. 신체적 측면(수면, 식욕, 건강 등), 사회적 측면(친구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직업이나 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변화), 정신적 측면(스트레스, 부정적, 두려움, 외로움 등)으로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회복효과 척도에 관한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950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에 따른 신뢰도는 신체적 회복효과 0.850, 사회적 회복효과 0.832, 정신적 회복효과 0.948이었다.

2) A.A.몰입(AAAS: The Alcoholics Anonymous Affiliation Scale)

Humphreys, et. al.(1998)에 의해서 개발된 A.A.몰입 척도(AAAS: The Alcoholics Anonymous Affiliation Scale)로 Choi(2014)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A.A. 참여 정도를 수치화한 이 척도는 1문항에 1점씩,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A.A. 참석 횟수와 A.A. 멤버로서의 정체성 여부, 후원자, A.A.내 봉사활동 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Choi(2014)의 연구에서는 신뢰도에서 Cronbach's α 계수 전체는 .90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17이었다.

3) 단주 자기효능감

DiClemente(1994)이 고안하고 Kim(1996)가 번안하여 수정한 단주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정적 정서, 사회적 압력, 신체적 고통, 금단 및

갈망에 대해 각각 5문항씩 총 20문항이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단주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Kim(1996)에 의해 보고된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968로 나타났다.

4)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가 전반적인 자기존중감 혹은 자기수용감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작하였고, 국내에서 Shin(2009)이 재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이 지각하는 자신에 대한 느낌이나 평가 정도 및 자기 수용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5문항, 부정적인 5문항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인 문항들에 대한 응답 항목의 점수를 역으로 환산한 후 개별적인 4점 문항의 단순합계로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781로 확인되었다.

5.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자료는 코딩 및 오류검토 작업을 거친 후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및 분석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를 검사하기 위해 내적신뢰도(Cronbach's α)를 사용하였다. 셋째, 측정 변인들에 대한 분석은 독립표본 t 검정과 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였다. 넷째, 알코올중독자의 회복에 있어서 가족지지, 직업, 학력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과 A.A.몰입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의 기여도를 비교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았다.

IV.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은 국내 A.A.모임에 참여

하고 있는 알코올중독자 554명이며,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73.3%, 여자가 26.7%로 남성이 7:3의 비율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52세이고,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았다. 결혼 상태는 미혼 30.5%, 결혼 41.9%, 이혼 21.1%, 별거 2.7%, 기타 3.6%로 조사되었다. 이는 통계청의 '2019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에서의 국민 전체 이혼율 5%와 비교하였을 때 AA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대상 알코올중독자의 이혼율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Kosis, 2020). 직장유무는 직장이 없다는 응답자가 25.6%, 직장이 있다는 응답자가 52.8%, 직장이 있었으나 잠시 쉬고 있다는 응답자 13.4%,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았고, 대

졸이상 34.7%, 대학원졸 이상 8.3%로 고학력자의 비중이 43%로 확인되었다. 종교분포는 기독교가 33.8%로 가장 많았고, 무교 26.5%, 카톨릭 24.4%, 불교 12.6% 순으로 파악되었다.

2. 조사대상자의 음주 및 단주관련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음주에 관한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처음 음주시작 연령은 평균 18.8세이었고, 10대에 음주를 시작한 경우가 63.7%로 가장 많았다. 본격적으로 혹은 취할 정도의 문제음주 시작 연령대는 20대가 4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평균 문제음주 시작연령은 25.1세로 나타났다. 음주경력은 10년 미만인 8.3%, 10년~19년이 23.3%, 20년~29년이 34.1%, 30년 이상이 34.3%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음주 경력은 23.4년이었다.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86.6%로 전문치료기관을 이용한 알코올중독자들의 비율이 치료기관 이용경험 없이 AA에 참여하는 숫자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알코올중독과 관련된 가족병력이 있다는 응답자는 57.7%로 가족력이 있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 대상자의 단주 관련 특성에서 A.A. 참여 횟수는 주 2회 이하 36.7%, 주 3회 이상 6회 이하 45.7%, 주 7회 이상 17.6%로 평균 주 3~4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A.모임 참여기간은 5년 미만 46.2%, 5년 이상 10년 미만 24.1%, 10년 이상 15년 미만 15.8%, 15년 이상 20년 미만 7.2%, 20년 이상 6.7%로 나타났다. 총 단주기간은 5년 미만 54.3%, 5년 이상 10년 미만 21.1%, 10년 이상 15년 미만 12.3%, 15년 이상 20년 미만 6.9%, 20년 이상 5.4%의 분포를 보였다. 자료에서 평균 단주기간 6년과 평균 AA참여 정도 7년이 비슷한 수준으로 AA 참여가 이들의 단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년을 기준으로 단주기간과 AA모임 참여 기간이 줄어들고 있었다. 단주 초기에는 A.A.모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다가 단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참여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Son(2015)의 연구와도 유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N	%
Gender	Male	406	73.3
	Female	148	26.7
Age group	20's	6	1.1
	30's	60	10.8
	40's	154	27.8
	50's	195	35.2
	Over 60	139	25.1
	Total	554	100
Marital Status	Single	169	30.5
	Marriage	232	41.9
	Divorce	117	21.1
	Separation	15	2.7
	Etc	21	3.8
Work or not	Full-time	290	52.3
	Leave of work	74	13.4
	Part time	48	8.7
	Inoccupation	142	25.6
Final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66	11.9
	High school graduate	250	45.1
	College graduate	192	34.7
	Graduate school or higher	46	8.3
Religion	Stheism	147	26.5
	Christian	187	33.8
	Catholic	135	24.4
	Buddhism	70	12.6
	Etc	15	2.7

Table 2. Drinking and recovering characteristics

variables		N	%	variables		N	%
Drinking start age	Under 19	352	63.7	Starting age of problem drinking	Under 19	156	28.3
	20-29 years old	174	31.5		20-29 years old	244	44.2
	Over 30	27	4.9		Over 30	152	27.5
Drinking experience	Less than 10 years	46	8.3	Hospitalization experience	Have	480	86.6
	10-19 years	129	23.3		None	74	13.4
	20-29 years	189	34.1		Family medical history	Yes	319
More than 30 years	190	34.3	No	234		42.3	
A.A. Participation	Less than 3 times a month	30	5.4	Recovering from A.A.	Yes	513	92.6
	1-2 times a week	173	31.3		No	41	7.4
	3-4 times a week	113	20.5	A period of quit drinking	Less than 1 year	102	18.4
	5-6 times a week	139	25.2		1 year or more to less than 3 years	129	23.3
	7-8 times a week	54	9.8		More than 3 to less than 5 years	70	12.6
	More than twice a day	43	7.8		More than 5 to less than 8 years	67	12.1
A.A. participation period	Less than 1 year	79	14.3		More than 8 to less than 10 years	50	9.0
	1 year or more to less than 3 years	103	18.7		More than 10 to less than 15 years	68	12.3
	More than 3 to less than 5 years	73	13.2		15 to less than 20 years	38	6.9
	More than 5 to less than 8 years	78	14.1		More than 20 years	30	5.4
	More than 8 to less than 10 years	55	10.0				
	More than 10 to less than 15 years	87	15.8				
	15 to less than 20 years	40	7.2				
	More than 20 years	37	6.7				

사한 결과이다. 이는 회복과정 중 A.A.를 의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발하여 모임을 떠난 결과로도 추측해 볼 수 있다.

3. 측정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변수들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 회복효과, AA몰입도, 단주 자기효능

감,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직업유무, 최종학력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85를 넘지 않았다(.85이상이면 다중공선성 존재). 따라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지표가 되는 분산팽창지수(VIF)가 1.014~1.361로 10이하였고, 공차한계가 0.735~0.986으로 1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설명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able 3. Correlations among recovery effect, A.A. affiliation, self-efficacy, self-esteem, Family support, employment status, & educational background

Variables	1	2	3	4	5	6	7
1 Recovery effect	-						
2 A.A. affiliation	.392**	-					
3 Self-efficacy	.490**	.269**	-				
4 Self-esteem	.415**	.174**	.393**	-			
5 Family support	.300**	.270**	.304**	.218**	-		
6 Employment status,	.132**	.039	-.031	.103*	.082	-	
7 Educational background	-.221**	-.173**	-.204**	-.091*	-.171**	-.100*	-

*p<0.05 **p<0.01

총괄 회복효과대신 신체적 회복효과, 사회적 회복효과, 정신적 회복효과를 투입한 결과에서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유효하였으며,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알코올중독 회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알코올중독으로부터의 회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신체적 회복효과, 정신적 회복효과, 사회적 회복효과, 총괄 회복효과를 종속변수로 두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일반적 특성을 더미변수로 처리한 직업, 고학력, 가족지지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AA관련 특성으로 AA몰입도 척도변수를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심리적 변화와 관련된 단주효능감과 자아존중감 척도를 투입하였다. 위계적 회귀모형에 있어서 단계적 투입의 근거는 이론적 근거에 따라 시간적으로 우선하는 변수, 인과적으로 우선하는 변수를 먼저 투입하였다.

1) 신체적 회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알코올중독자의 신체적 회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Step 1에서 일반적 특성 변수 중 가족지지와 직업이 신체적 회복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6.9%로 파악되었다. Step 2에서

AA 몰입도가 추가적으로 투입된 결과, 설명력은 14.9%로 증가하였으며, 직업과 가족지지, AA 몰입도 등의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Step 3에서 단주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결과, 설명력은 22.9%로 증가하였으며, 직업, AA몰입도, 단주효능감,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값(β)을 기준으로 영향 정도의 크기를 파악한 결과, AA 몰입도($\beta = 0.190$)가 신체적 회복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다음으로 단주효능감($\beta = 0.185$)과 자아존중감($\beta = 0.175$), 직업($\beta = 0.126$) 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사회적 회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알코올중독자의 사회적 회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Step 1에서 일반적 특성 변수 중 직업, 고학력, 가족지지 모두 사회적 회복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2.5%로 파악되었다. Step 2에서 AA 몰입도가 추가적으로 투입된 결과, 설명력은 23.1%로 증가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AA 몰입도 변수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Step 3에서 단주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결과, 설명력은 35.5%로 증가하였으며,

Table 4. Regression model for factors influencing the physical recovery of alcoholism

Variables	Step 1			Step 2			Step 3		
	B	β	t	B	β	t	B	β	t
	13.391		39.085	9.801		15.604	3.587		3.353
Employment status,	1.436	.194	4.676***	1.097	.148	3.680***	.929	.126	3.242*
Educational background	.152	.021	.503	.077	.011	.267	.069	.009	.248
Family support	1.235	.153	3.684***	.683	.085	2.062*	.239	.030	.743
A.A. affiliation				.531	.247	5.431***	.409	.190	4.323***
Self-efficacy							.041	.185	4.274***
Self-esteem							.155	.175	4.200***
R ²	0.069			0.149			0.229		
F-value	13.490***			19.058***			22.995***		

*p<0.05 **p<0.01 ***p<0.001

Table 5. Regression model for factors influencing the social recovery of alcoholism

Variables	Step 1			Step 2			Step 3		
	B	β	t	B	β	t	B	β	t
	20.313		46.996	15.173		19.527	5.766		4.528
employment status,	1.641	.171	4.238***	1.124	.117	3.049**	.806	.084	2.365*
educational background	.983	.104	2.587*	.847	.089	2.363*	.897	.095	2.705**
family support	2.777	.265	6.568***	1.982	.189	4.839***	1.251	.119	3.270**
A.A. affiliation				.720	.257	5.953***	.521	.186	4.624***
self-efficacy							.080	.276	6.989***
self-esteem							.194	.168	4.421***
R ²	0.125			0.231			0.355		
F-value	26.084***			32.755***			42.690***		

*p<0.05 **p<0.01 ***p<0.001

일반적 특성과 AA몰입도 변수, 심리적 변화 변수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값(β)을 기준으로 영향 정도의 크기를 파악한 결과 단주효능감($\beta = 0.276$)이 사회적 회복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다음으로 AA 몰입도($\beta = 0.186$), 자아존중감($\beta = 0.168$), 가족지지($\beta = 0.119$), 고학력($\beta = 0.095$), 직업($\beta = 0.084$) 순으로 파악되었다.

3) 정신적 회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알코올중독자의 정신적 회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6>과 같다.

Step 1에서 일반적 특성 변수 중 직업, 고학력, 가족

지지 모두 정신적 회복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6.4%로 파악되었다. Step 2에서 AA 몰입도가 추가적으로 투입된 결과, 설명력은 15.5%로 증가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중 고학력과 가족지지, 두 가지 AA몰입도 변수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Step 3에서 단주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결과, 설명력은 33.5%로 증가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중 고학력과 AA몰입도 변수, 심리적 변화 변수 두 가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값(β)을 기준으로 영향 정도의 크기를 파악한 결과 단주효능감($\beta = 0.304$)이 정신적 회복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다음으로 자아존중감($\beta = 0.235$), AA 몰입도($\beta = 0.145$), 고학력($\beta = 0.103$) 순

Table 6. Regression model for factors influencing the Psychic recovery of alcoholism

Variables	Step 1			Step 2			Step 3		
	B	β	t	B	β	t	B	β	t
	34.171		44.643	26.142		18.744	5.917		2.673
employment status,	1.396	.085	2.036*	.574	.035	.867	-.034	-.002	-.057
educational background	1.864	.115	2.769**	1.637	.101	2.545*	1.670	.103	2.897**
family support	3.429	.191	4.580***	2.184	.122	2.972**	.683	.038	1.028
A.A. affiliation				1.106	.231	5.095***	.696	.145	3.554***
self-efficacy							.152	.304	7.579***
self-esteem							.465	.235	6.102***
R ²	0.064			0.155			0.335		
F-value	12.513***			20.002***			39.132***		

*p<0.05 **p<0.01 ***p<0.001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알코올중독자의 회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알코올중독으로부터의 회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Table 7>과 같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Step 1에서 일반적 특성 3개의 변수 중 직업, 고학력, 가족지지 모두가 회복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9.8%로 파악되었다. Step 2에서 AA 몰입도가 추가적으로 투입된 결과, 설명력은 21.6 %로 증가하였으며, 가족지지와 AA 몰입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Step 3에서 단주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결과, 설명력은 39.2%로 증가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대학졸업이상의 고학력 변수와 AA 몰입도와 단주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Step 3에서 t값(β)을 기준으로 영향 정도의 크기를 파악한 결과, 단주효능감($\beta = 0.304$) > 자아존중감($\beta = 0.229$) > AA 몰입도($\beta = 0.188$) > 고학력($\beta = 0.095$) 순으로 회복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파악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적 특성 보다 AA 몰입도 그리고 이 보다 자아존중감과 단주자기효능감이 알코올중독으로부터 회복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파악되었다.

V. 논의

본 연구는 알코올중독자의 회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 중에서 일반적 특성 중에서 특히 가족지지, 직업, 학력이 통제된 배경변수로서 회복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A.A. 몰입도와 심리적 태도와 관련된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회복효과에의 영향 정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알코올중독자의 회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추정된 회귀모형에서 회복효과에 하위요인인 신체적 회복효과와 관련해서는 AA 몰입도가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다음으로 단주효능감, 자아존중감, 직업 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적 회복효과와 관련해서는 단주효능감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AA 몰입도,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고학력, 직업 순으로 파악되었다. 정신적 회복효과와 관련해서는 단주효능감, 자아존중감, AA 몰입도, 고학력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중독자의 총괄 회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추정된 회귀모형에서 일반적 특성 보다 AA 몰입도와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의 심리적 태도 변화가 알코올중독으로부터 회복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단주효능감, 자아존중감, AA 몰입도, 고학력 순으로 회복효과에 미

Table 7. Regression model for factors influencing the recovery of alcoholism

Variables	Step 1			Step 2			Step 3		
	B	β	t	B	β	t	B	β	t
	67.876		50.140	51.117		21.116	15.270		4.004
employment status,	4.474	.151	3.688***	2.795	.094	2.433	1.701	.057	1.666
educational background	2.999	.103	2.519*	2.561	.088	2.294	2.636	.090	2.654*
family support	7.441	.230	5.619***	4.849	.150	3.800***	2.173	.067	1.897
A.A. affiliation				2.356	.273	6.256***	1.626	.188	4.819***
self-efficacy							.273	.304	7.930***
self-esteem							.813	.229	6.195***
R ²	0.098			0.216			0.392		
F-value	19.875***			29.989***			49.984***		

*p<0.05 **p<0.01 ***p<0.001

치는 영향력이 파악되었다.

결국 알코올중독자의 총괄 회복효과, 그리고 그 하위요인인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회복효과에 있어서 A.A.몰입도, 단주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4가지 회복효과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들 주요변수들은 통제변수인 직업의 유무에 따라서 신체적, 사회적 회복효과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가족지지의 유무는 사회적 회복효과에 유의한 영향력 차이를 보였으며, 고학력은 사회적, 정신적, 총괄 회복효과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의 차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A.A.모임이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측면에서 모두 좋은 변화를 이끈다는 Jung(1999)의 연구결과와 A.A.몰입이 높을수록 회복동기가 높다는 Choi(2014)의 연구, 알코올중독 치료프로그램 중에서 12단계가 단주유지와 재발방지에 효과적이라는 Donovan, et. al.(2008)의 연구, 단주를 결심하고 AA모임에 참여한 사람이 높은 단주자기효능감을 가지게 된다는 Yoo(2002)와 Shin(2009)의 연구를 지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알코올중독자가 중독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12단계를 실천하는 A.A.몰입과 단주생활의 실천을 통해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생활방식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A.A.참여가 회복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연구는 많았지만(Yoon, 2001; Yang, 2007; Park, 2008; Park, 2013; Lim, 2020)국내에서 A.A.몰입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에(Choi, 2014)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A.A. 몰입의 중요성은 중독 상담사들이 지역사회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알코올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 방향을 제시해 준다. 병원 또는 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알코올중독자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A.A.에 진입하고 진정한 내부인으로서 A.A.에 몰입하게 될 때 삶의 여러 영역에서 회복을 경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독 상담사들의 적극적인 가교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에 근무하는 중독 상담사들의 상당수가 A.A.의 정신이나 가치, 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알코올중독자와 가족들에게 단순히 A.A.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병원치료를 권하는 수준에서 개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알코올중독자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지속적인 관리 체계 내에서 진정한 회복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중독 상담가들이 먼저 A.A.몰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시킬 수 있는 지식과 열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알코올중독 관련 기관이나 알코올중독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사회 기관의 알코올중독 개입프로그램들은 주로 CBT나 동기상담, 12단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세 가지의 개입방법은 중독영역에서 효과가 있는 근거중심 실행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Anka, et. al., 2019).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의 방법과 중심 철학에 있어서 단주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보다 지지적인 치료적 개입이 요구된다. 그리고 CBT나 동기상담에 비해 12단계 프로그램은 훈련받은 실무자가 적고 이에 A.A.몰입의 근간이 되는 12단계를 심도 있게 다루는 기관이나 중독 상담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실무자들에게 시행하는 중독전문가 보수교육이나 기타 교육에서 중독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 12단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기관에서 시행하는 알코올중독 재발방지 프로그램 내용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알코올중독자들의 회복을 촉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A.A.몰입이 회복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통제변수인 직업은 신체적, 사회적 회복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족지지는 사회적 회복효과에, 그리고 학력은 사회적, 정신적, 총괄 회복효과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직업유무가 신체적, 사회적 회복효과

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알코올중독자의 회복에 있어서 사회 경제적 안정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알코올중독자의 회복에 있어서 신체건강, 정신건강, 가족, 직업, 주거 등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직업과 주거영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Peter, et. al.(201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 효능감을 증가시키고 단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A.A에 참석하는 멤버들이 회복과 직업생활 유지라는 이중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Cho, 2017) 낙인감과 스트레스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과 심리적지지 프로그램 개발을 제공할 수 있다면 회복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들은 알코올중독자의 단주를 위해서는 가족의 지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나(Kaskutas, 2001; Walitzer, et. al., 2004) 반면 잦은 재발로 가족들은 지치고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잘못된 방법으로 긍정적인 지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Park & Cho, 2019).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A.A.몰입과 가족의 지지가 사회적 회복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알코올중독자들이 A.A.에 몰입하면서 자신의 과거 잘못을 들여다보고 각성이 일어나며 가족 안에서 새로운 사회화 과정이 실현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A.A.에 몰입중인 알코올중독자들의 회복과정에서 가족들을 가족개입프로그램이나 Al-Anon 등에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 지속적인 회복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특히 Al-Anon은 알코올문제를 가진 친구와 가족에게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지지집단이기에(Al-Anon, 2020) 회복자들의 가족들이 Al-Anon에 참석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높은 학력이 사회적, 정신적, 총괄 회복효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었는데,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알코올중독에 대한 이해와 자기인식이 더욱 가능하고 문제해결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

다. 이에 알코올중독자들의 학력수준과 관련된 정보 습득 및 비합리적 인지변화 정도를 고려한 차별화된 개입전략이 필요하겠다.

VI.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A.A.모임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실행하였기에 그 결과가 국내 알코올중독자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알코올중독자 전체의 상황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향후 병원이나 시설 등에 거주하는 당사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표집의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목적적 표집 방법으로 확률 표집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국 단위의 A.A.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의 주요변수들에 대한 이론적 검토과정에서 통계적으로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후속연구에서는 매개변수 등 다양한 변수 간의 인과성 검증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회복의 하위영역을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인 세 가지 측면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정신적 회복에 영적인 회복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나, 영성은 A.A.몰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이 점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l-Anon. 2020. <https://al-anon.org/>
- Allen, J. P. 2000. Measuring Treatment Process Variables in Alcoholics Anonymous.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18(3): 227-230.
- Annis, H. M. and C. S. Davis. 1991. Relapse Prevention. *Alcohol Health & Research World*. 15(3): 204-213.
- Billings, A. 1979. Conflict Resolution in Distressed and

- Nondistressed Married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2): 368-376.
- Blonigen, Daniel M., Christine Timko, and Rudolf H. Moos. 2013. Alcoholics Anonymous and Reduced Impulsivity: A Novel Mechanism of Change. *Substance Abuse*. 34(1): 4-12.
- Broome, Kirk M., D. Simpson, Joe Dwayne, and George W. 2002. The Role of Social Support Following Short-term Inpatient Treatment. *The American Journal on Addictions*. 11(1): 57-65.
- Cho, Kwan Hyung. 2013. A Phenomenon Logical Study on Return to Work of Recovering Alcoholics. Ph.D. Dissertation. Pyongtaek University.
- Cho, Myeong Suk. 2017. The Adaptation Process of Alcoholics to Job Life. Ph.D. Dissertation. Dongshin University.
- Choi, Eun Jeung.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Recovery Motivation among Alcoholic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A.A. Affiliation. Ph.D.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 Chun, Duk Hee. 2011. A Study on Experiences of Recovering Alcoholics through Alcoholics Anonymous. Ph.D.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 Cloud, R. N., C. H. Ziegler, and R. D. Blondell. 2004. What is Alcoholics Anonymous Affiliation? *Substance Use and Misuse*. 39(7): 1117-1136.
- Dawson, D. A., B. F. Grant, F. S. Stinson, and P. S. Chou. 2006. Estimating the Effect of Help-seeking on Achieving Recovery from Alcohol Dependence. *Journal of Addiction*. 101(6): 824-834.
- Di Clemente, C. C., J. P. Carbonari, R. Montgomery, and S. O. Hughes. 1994. The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5(2): 141-148.
- Donovan, D. M. and A. S. Floyd. 2008. Facilitating Involvement in Twelve-step Programs. *Recent Developments in Alcoholism*. 18: 303-320.
- Durant, Arthur. 2005. An Interpretive/Constructivist Model of Affiliation with Alcoholics(A.A.). *Journal of Ethnicity in Substance Abuse*. 4(1): 5-21.
- Felicia, W. Chi, A. Kaskutas Lee, Stacy Sterling, Cynthia I. Campbell, and Constance Weisner. 2008. Twelve-Step Affiliation and 3-year Substance Use Outcomes among Adolescents: Social Support and Religious Service Attendance as Potential Mediators. *Addiction*. 104(6): 927-939.
- Hailemariam, M., M. Stein, B. Anderson, Y. C. Schonbrun, K. Moore, M. Kurth, F. Richiel, and J. E. Johnson. 2018. Correlates of Alcoholics Anonymous Affiliation among Justice-involved Women. *BMC Women's Health*. 18: 125.
- Han, Mi Young. 200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amily Support and Hope by Alcoholics Anonymou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Hill, P. 2005. Addiction and Recovery Experience of African American Women: A Phenomenological Study. Ph.D. Dissertation.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 Humphreys, K. and R. H. Moos. 2007. Encouraging Posttreatment Self-help Group Involvement to Reduce Demand for Continuing Care Services: Tow-year Clinical and Utilization Outcomes. *Substance Abuse*. 5(2): 193-198.
- Humphreys, K., L. A. Kaskutas, C. J. D. Weisner, and A. Dependence. 1998. The Relationship of Pre-treatment Alcoholics Anonymous Affiliation with Problem Severity, Social Resources and Treatment History. *Drug and Alcohol Dependence*. 49(2): 123-131.
- Jacobson, N. and L. Curtism. 2000. Recovery as Policy in Mental Health Services: Strategies Emerging from the States.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23(4): 333-341.
- Jang, J. S. 2011. Influence Which Self Esteem and Social Support of Alcohol Dependents Have on Motivation to Change.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Jang, Seung Ock. 2014. Alcoholics Anonymous: Treatment Effectiveness and Changing Mechanism.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33(1): 141-159.
- Jung, Yun Chul. 1999. An Evaluative Study for the Alcoholics Anonymous(A.A.) in Korea.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Kaskutas, L. A., J. Bond, and K. Humphreys. 2001. Social Networks as Mediators of the Effect of Alcoholics Anonymous. *Addiction*. 97.
- Kim, Han O. 2016. Overview of Twelve Step Facilitation Therapy. *J Korean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20(2): 55-60.
- Kim, M. K. 2012. The Influencing Factors on Severity of Drinking in Alcoholism.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 Kim, Min Chul, Dong Ryul Oh, and Kang Kyu Park. 1999. Variables

- Affecting the Prognosis of Alcohol-dependent Patients
Addictional Psychiatry. *Korean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3: 75-82.
- Kim, Sung Jae. 1996. Modeling Relapse of Alcoholism: Male
Alcoholic in-patients of Psychiatric Ward.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Sung Yong. 2002. The Influence That Degree of Strass,
Its Coping Type, and Family Supportiveness Have on the
Seriousness of Alcohol Addiction. Master's Thesis. DaiBul
University.
- Kodcar. 2002. *Alcohol Think*. Seoul: KODCAR.
- Kosis. 2020. <http://kosiskr>
- Lee, Bong Jae. 2006.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of Alcoholics. *Mental Health & Social Work*.
22: 33-57.
- Lee, Sun Hwa. 1999. A Comparative Study on the Social Support
of Alcoholics Anonymous and Non-participating Alcoholics
Anonymous.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 Lee, Ye Seung. 2013. A Study on the Construct of Recovery
among Mentally Disabled People: Q Methodological
Applica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5(3):
485-514.
- Lee, Youn Chung. 2016.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Recovery of Alcoholic.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 Lee, Young Hee. 2002. A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s of
Alcoholics Participation in Alcoholics Anonymous.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 Lim, Jae Yeon. 2020.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f Abstinence
in Alcoholics.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 Miller, W. R. and E. Kurtz. 1994. Models of Alcoholism Used
in Treatment: Contrasting AA and Other Perspectives with
Which It Is Often Confused.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5(2): 159-166.
- Montgomery, H. A., W. R. Miller, and J. S. Tonigan. 1995. Does
Alcoholics Anonymous I Nvolvement Predict Treatment
Outcome?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12(4):
241-246.
- Moos, R. H. and B. S. Moos. 2004. Long-term Influence of Duration
and Frequency of Participation in Alcoholics Anonymous
on Individuals With Alcohol Use Disord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2(1): 81-90.
- Ouimette, P. C., J. W. Finney, and RHJoc Moos. 1997. Twelve-step
and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for Substance Abuse:
A Comparison of Treatment Effectivenes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2): 230-240.
- Park, Hyun Mi. 2013.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on Alcoholics
to be Abstinent from Alcohol: Based on an Effect of Social
Effect.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 Park, Jung Im. 2008. The Effect of Alcoholics Anonymous
Participation on Alcohol Problem Rehabilitat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5(2): 41-61.
- Park, Sung Kun. 2015.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Percieved by Alcoholics Anonymous Meeting Participants
and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and Anger.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 Park, Young Soon and Sung Hee Cho. 2019. 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Crisis Overcoming Process of Alcoholic's Spouse
Attending Al-An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2):
303-327.
- Peter, D. M. D. Friedmann. 2013. Alcohol Use in Adults.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68: 365-373.
- Platt, J. J. 1995.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Drug Abusers.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16-433.
- Rhee, Young Sun and Soo Youn Kim. 2015. Effect of Abstinence
Efficacy on Recovery Among Alcoholic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2): 8472-8478.
- Robert, Y., S. Helen, and W. Patrick. 2008. A Longitudinal Study
of Alcohol Use and Sntisocial Behaviour in Young. *Alcohol
and Alcoholism*. 43(2): 204-214.
- Shin, H. Y. 2009. A Study of the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mong Sober Alcoholics in Alcoholics Anonymous: Analysis
on the Time in Recovery and Gender.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Son, Jo Young. 2015. Comparison on Abstinence Self-efficacy
and Recovery Depending on the Degree of Alcoholics' AA
Participatio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Strobbe, S. 2009. Alcoholics Anonymous: Personal Stories,
Relatedness, Attendance and Affiliatio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 Strom, J. and D. F. Barone. 1993. Self-deception, Self-esteem, and Control over Drinking at Different Stages of Alcohol Involvement. *Journal of Drug Issues*. 23(4): 705-714.
- Subbaraman, M., K. Sabina, and Ann Lee. 2001. Social Support and Comfort in AA as Mediators of "Making AA Easier" (MAAEZ), A 12-step Facilitation Intervention.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6(4): 759-765.
- Sung, Sang Kyung and Hwan Il Chang. 1995. A Study for The Prognostic Indicators of Korean Alcoholics in Psychological, Social and Biological Aspects. *Korean Journal of Biological Psychiatry*. 2(2): 218-236.
- Sung, Sang Kyung, Whang Sun Moon, Han O Kim, and Kyu Hang Lee. 2003. A Short-term Follow-up Study of Participants in an Inpatient Alcoholism Treatment Program. *Korean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7(2): 123-133.
- Tonigan, J. S., R. Toscova, and W. R. Miller. 1996. Meta-analysis of the Literature on Alcoholics Anonymous: Sample and Study Characteristics Moderate Finding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7(1): 65-72.
- Vujanovic, Anka A., Antoine Lebeaut, Maya Zegel, Tanya Smit, and Erin C. Berenz. 2019. Post-traumatic Stress and Alcohol Use Disorders: Recent Advances and Future Directions in Cue Reactivity.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30: 109-116.
- Walitzer, K. S. and K. H. Dermen. 2004. Alcohol-focused Spouse Involvement and Behavioral Couples Therapy: Evaluation of Enhancements to Drinking Reduction Treatment for Male Problem Drink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2(6): 944-955.
- Walton, M. A., C. B. Frederic, C. B. Raymond, and T. C. Stephen. 2003. Individual and Social/Environmental Predictors of Alcohol and Drug Use 2 Years following Substance Abuse Treatment. *Addictive Behavior*. 28(4): 627-642.
- Won, Sung Doo and Su Ryong Kim. 2017. Impact of Goal-focused Self-regulation on Alcohol Use Problem: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ve Symptom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36(3): 291-300.
- Woo, Jea Hee. 2012. Correlation of Stress Coping, Social Support and Motivation for Change of Alcoholics. *Mental Health & Social Work*. 40(4): 116-145.
- Yang, Yoon Mo and Sul Ki Chung. 2010. The Influence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rapeutic Factors of Alcoholics Anonymous and Abstinence Self-efficacy. *Korean Society of Alcohol Science and Health Behavior*. 11(1): 57-75.
- Yang, Yoon Mo. 2007. Influences of Alcoholics Anonymous(A.A.) on Abstinence Self-efficac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Yoo, Cai Young. 2002. A Study of Effectiveness of Group Program for Domestic Violent Offender's Problem Drinking.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0: 85-116.
- Yoo, Jae Soon, Jong Eun Lee, and Woo Young Park. 2016.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of Alcoholics Anonymous Member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6(2): 305-314.
- Yoon, Myeong Sook and Nam Hee Kim. 2015.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to Change and Quality of Life among Alcoholic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5(1): 110-135.
- Yoon, Myeong Sook, Hong Ji, and Hye Chung Cho. 2012. Effectiveness of Inpatient Program on the Recovering Process among Alcoholics. *Korean Society of Alcohol Science and Health Behavior*. 13(2): 55-71.
- Yoon, Myeong Sook. 2001. Drinking, Sobriety and High Risk Drinking Situations of Discharged Alcoholic Patients in Community. *Korean Society of Alcohol Science and Health Behavior*. 2(2): 13-25.
- Yoon, Myeong Sook. 2005. Foreign System of Rehabilitation Services for Alcoholics. Alcohol Prevention and Alcoholism Treatment. *Rehabilitation Action Debate Material Book*. Central Mental Health Project Support Group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김민경. 2012. 알코올중독자의 음주심각도 관련요인. 석사학위 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
- 김민철, 오동렬, 박강규. 1999. 알코올의존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독정신의학*. 3(1): 75-82.
- 김성용. 2002. 스트레스정도, 대처유형 및 가족지지 정도가 알코올중독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불대학교 대학원.

- 김성재. 1996. 알코올리즘의 재발에 관한 이론적 모형 구축: 정신병원에 입원한 남성 알코올리즘 환자를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한오. 2016. 12단계 촉진치료 개괄. 중독정신의학. 20(2): 55-60.
- 박성근. 2015.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 참여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단주자기효능감 및 분노와의 상관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박영순, 조성희. 2019. 알아년에 참여하는 알코올중독자 배우자의 위기 극복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20(2): 303-327.
- 박정임. 2008. 문제음주자의 AA(Alcoholics Anonymous) 참여가 음주문제 재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 연구. 5(2): 41-61.
- 박현미. 2013. 알코올 중독자의 단주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성상경, 문황선, 김한오, 이규향. 2003. 알코올리즘입원치료프로그램 참가자들의 퇴원 후 단기 경과. 중독정신의학. 7(2): 123-133.
- 성상경, 장환일. 1995. 한국인 알코올중독 환자의 예후인자에 관한 연구. 생물정신의학. 2(2): 218-236.
- 손조영. 2015. 알코올중독자의 AA(Alcoholics Anonymous)모임 참여도에 따른 금주자기효능감 및 회복도 비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신혜연. 2009. 단주자조그룹에 참여하는 단주자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연구: 단주기간과 성별에 따른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양윤모, 정슬기. 2010. 익명의 알코올중독자모임(A.A)의 치료요인과 단주의지의 관계에서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 알코올과건강행동연구. 11(1): 57-75.
- 양윤모. 2007. 익명의 알코올중독자모임(A.A)이 단주의지에 미치는 영향: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우재희. 2012. 알코올중독자의스트레스대처방식사회적지지와변화 동기의 상관관계.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0(4): 116-145.
- 원성두, 김수룡. 2017. 목표중심 자기조절이 알코올 사용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36(3): 291-300.
- 유재순, 이종은, 박우영. 2016. 익명의 알코올중독자(AA) 모임 참여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46(2): 305-314.
- 유채영. 2002. 가정폭력행위자의 문제음주 변화동기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효과. 사회복지연구. 20: 85-116.
- 윤명숙, 김남희. 2015. 알코올중독자의 회복동기와 삶의 질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35(1): 110-135.
- 윤명숙, 지홍, 조혜정. 2012. 알코올중독자의 입원치료프로그램 참여가 회복에 미치는 영향.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 13(2): 55-71.
- 윤명숙. 2001. 퇴원한 지역사회 알코올중독자의 음주 및 단주 관련 특성과 음주위험상황.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 2(2): 13-25.
- 윤명숙. 2005. 외국의 알코올 중독자 재활치료 서비스 체계. 알코올 음주예방 및 알코올 중독 치료. 재활대책 토론회 자료집.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보건복지부.
- 이봉재. 2006. 알코올중독자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지지의 효과에 관한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2: 33-57.
- 이선화. 1999. 단주진목집단 참여 알콜중독자와 비참여 알콜중독자 간의 사회적 지지도에 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이영선, 김수연. 2015. 알코올중독자의 단주의지와 회복에 관한 연구: 적응유연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산학기술학회지. 16(12): 8472-8478.
- 이영희. 2002. 알코올중독자의 자활단주참여 효과성에 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이예승. 2013. 정신장애인의 회복개념 구성 연구. 보건사회연구. 35(3): 485-514.
- 이윤정. 2016. 알코올중독 입원환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임재연. 2020. 알코올중독자의 단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장승욱. 2014. 익명의 알코올중독자 모임(AA)의 치료효과와 변화기제. 한국사회과학연구. 33(1): 141-159.
- 장정선. 2011. 알코올 의존자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변화동기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윤철. 1999. 자활단주(Alcoholics Anonymous)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조관형. 2013.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의 직업 부귀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대학원.

조명숙. 2017. 알코올중독자의 직업생활 적응과정. 박사학위논문. 동신대학교 대학원.

천덕희. 1998. 알코올중독자의 단주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천덕희. 2011. A.A.를 통해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최은정. 2014. 알코올중독자의 우울과 회복동기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A.A.몰입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02. 알코올백과. 서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한미영. 2003. 단주자조모임에 참여하는 알코올중독자의 지각된 가족지지와 희망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Received: Sep. 4, 2020 / Revised: Sep. 29, 2020 / Accepted: Sep. 29, 2020

A.A.모임 참여 알코올중독자의 회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AA에 참여중인 알코올중독자의 회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찾아서 이 변수들 간의 영향정도를 비교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목적적 표집방법으로 국내 A.A.모임 참가자들을 표집하여 그중 554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알코올중독자의 삶의 온전한 변화와 관련된 회복효과, 그리고 그 하위요인인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회복효과에 있어서 가족지지, 직업, 학력 등의 일반적 특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A.몰입도가 회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단주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회복에 가장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알코올중독자의 회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에 대해 논하였고 A.A.활성화와 12단계 촉진 프로그램 등 재발예방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적 지지, 가족지지, 직업재활 등의 구체적인 실천적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A.A.몰입도, 회복,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Profiles **Sun Hee Kim** : She received her M.A. from Eulji University, Korea in 2019. She is a recovering alcoholic and has been a member of AA for 10 years. Her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Alcoholic Addiction (boramaekim@naver.com).

Hyung Ui Baik : Sh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Addiction Rehabilitation and Social Welfare at Eulji University. Her interesting subject and education is Addiction & Psychosis counselling, Mental Health, PTSD(smart2ky@eulji.ac.kr).

Young Ho Kim : H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Addiction Rehabilitation and Social Welfare at Eulji University, in which he has taught since 2013. His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Addiction & Psychosis counselling, treatment, preven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He has published several articles in journals and written several books(kyh1212@eulji.ac.kr).